

Daily Auto Check

2020. 10.5(Mon)



자동차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
02.6454-4866

joonsung.kim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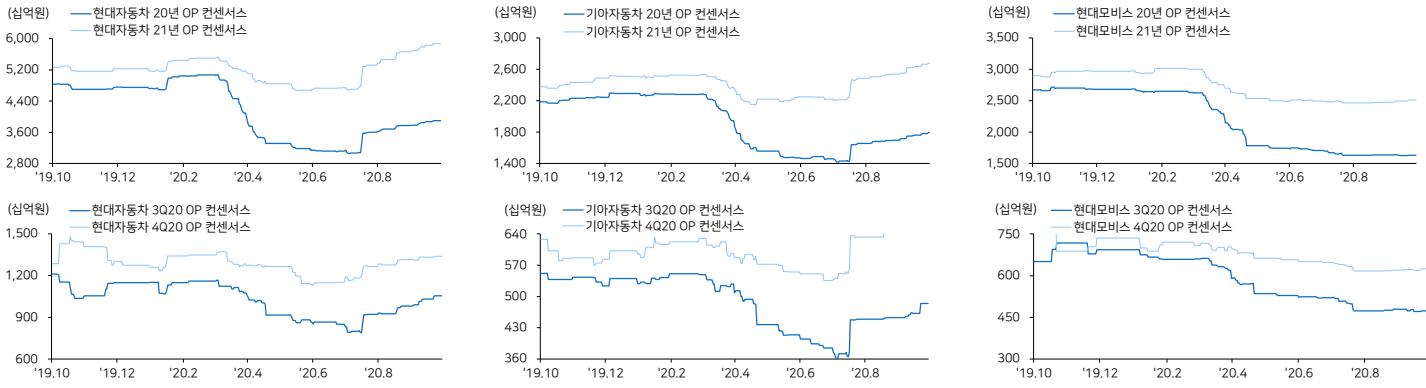
RA 이다빈

02.6454-488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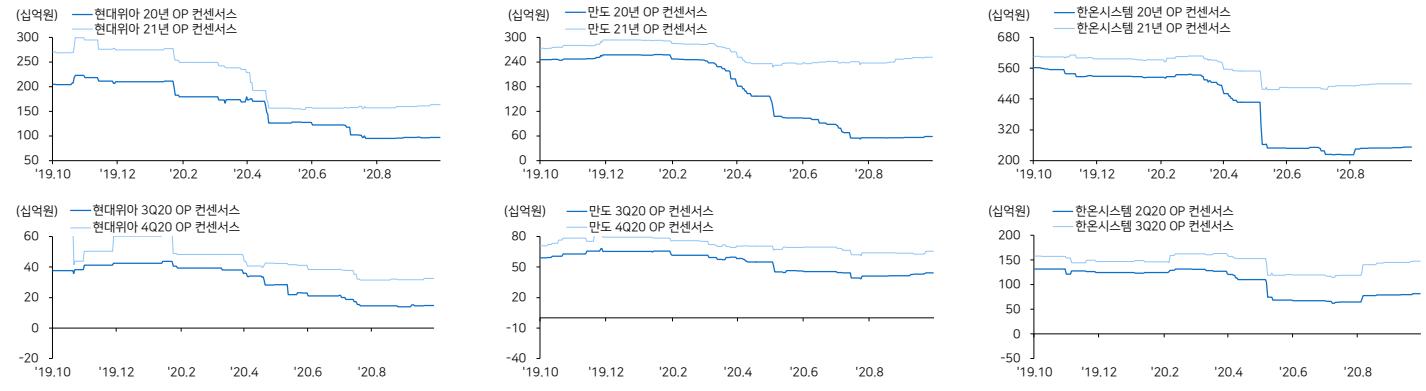
dabin.lee@meritz.co.kr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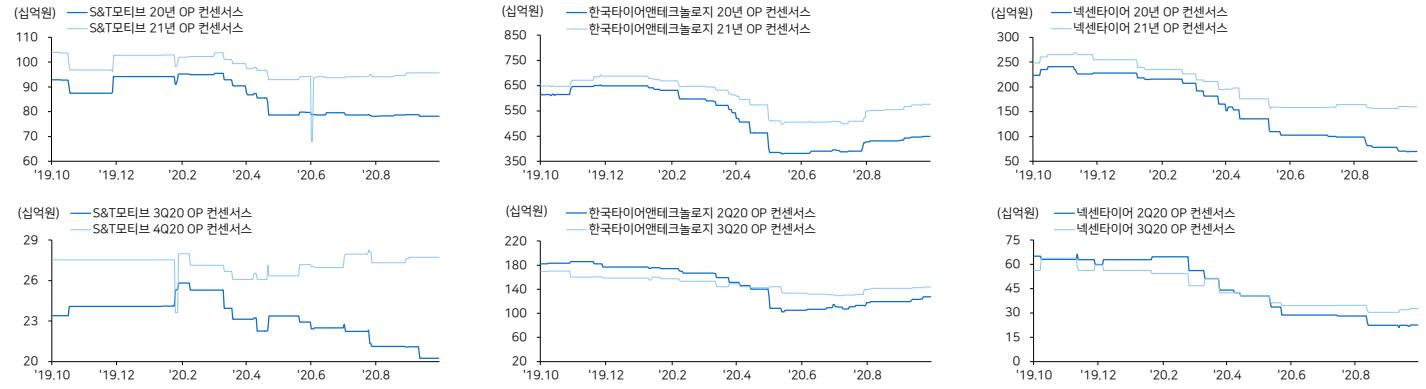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3Q 영업익 1조 복귀···'내수·신차' 효과↑ (뉴스웨이)

현대차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원 복귀할 것으로 보임.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만,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0.9% 증가한 수치.
<https://bit.ly/3i1H4O>

현대차 아이오닉5에 R-MDPS 채택, 실내공간으로 테슬라 잡나 (동아닷컴)

현대·기아차가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인 'E-GMP' 기반의 차에서 조향을 돋는 전기 모터를 스티어링 휠과 가까운 곳에 두는 '칼럼 마운트 방식(C-MDPS) 대신' '막 마운트 방식(R-MDPS)'을 채택.

<https://bit.ly/3iwwsGk>

테슬라·중국이 이끄는 세계 전기차 시장 10년 후 12배로 커진다 (서울경제)

세계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올해 250만대에서 2030년 3,110만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. 최근 일본 머스크는 2030년까지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지난해의 50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.

<https://bit.ly/2G2CIAI>

12번 불탄 전기차 '코나'···국과수 "배터리 열폭주 추정" (중앙일보)

4일 새벽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 또 다시 불탔. 2018년 4월 출시 이후 12번째 화재 사건이었다.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잇따른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의 원인이 배터리리烨의 결함 때문일 가능성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림.

<https://bit.ly/3jzC6vw>

"美 9월 서프라이즈" 현대·기아차 SUV 독주 (한국경제)

현대·기아자동차가 지난달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'동시 반등'에 성공. 두 회사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 이후 7개월 만.

<https://bit.ly/2GC2YES>

기아차, 인도서 딜러 만족도 1위···도요타 앞질러 (디지털타임즈)

기아차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인도자동차딜러연합회(FADA)가 발표한 제조사의 딜러 지원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. 기아차는 736점(1000점 만점)으로 승용차 양산 브랜드 중 1위를 차지.

<https://bit.ly/36wp7nT>

현대차, 일 물아주고 나머지 쉬는 '묶음작업' 적발···무더기 정경 (동아닷컴)

현대자동차 출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할당된 업무를 일부 직원에게 물아주고 나머지 직원은 쉬는 이른바 '묶음작업' 사례가 적발돼 직원들이 무더기 정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.

<https://bit.ly/3cWwW7L>

'자율주행' 시대 성큼···정밀도로지도 구축에 160억 투입 (뉴스1)

정부가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인프라인 '정밀도로지도'의 구축 범위를 내년에 대폭 확대. 국토교통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160억원을 반영해 1만4000km의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.

<https://bit.ly/3lhdaXB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